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박 윤 원

신 효 정[†]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이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41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경력, 수퍼비전 경험(횟수), 사례개념화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집단 간에 사례개념화 능력은 중간경력과 고경력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역전이 관리 능력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인 '불안관리' 영역에서는 고경력 집단이 중간경력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집단 간에 사례개념화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은 수퍼비전 저경력 집단에 비해 고경력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학교 상담과 전문상담교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전문상담교사, 수퍼비전, 사례개념화, 역전이 관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신호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종합관 / Tel : 031-219-3593, E-mail : blkbabe@ajou.ac.kr

2017년 현재, 전국 1800여명(교육부, 2016)의 전문상담교사가 단위 학교 내 상담실인 위클래스,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상담실인 위센터 등에 학교 상담을 전담하는 전문가로 배치되어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포함하는 상담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관련 교육, 연계, 행정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김인규, 조남정, 2010),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학업중단, 성, 우울, 자살 등 다양한 위기와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적응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가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한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이지희, 2010) 다양한 역할과 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학교상담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돕는 전문가의 사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제도가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 수준과 전문상담의 성과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남순임, 2016;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이지희, 김희대, 이상민, 2012). 이러한 의심은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 과정이 과도하게 상담에 관한 이론과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실습 및 훈련에 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학교 현장에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된다(금명자, 2007; 김인규, 2009;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이와 같이 학교 상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전문적 상담 업무에 숙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당장 시급하게 개입해야하는 위기사례나 전문적인 관리 및 지원

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통계청(2016a)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를 자살로 집계하였고, 2015년의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의 정신 건강, 일탈/비행, 컴퓨터/인터넷 중독 관련 등의 청소년 상담이 4백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2016b). 이는 전문적 상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위기 수준의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자살 위험 등 관심군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나 치료에 동의하지 않고 학교 안 지원에만 의존하는 DSM-5에 입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 범죄에 연루된 학생 등 고위기에 놓인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학교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이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안에서의 가장 큰 책무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전문상담교사가 위와 같은 사례들을 적시에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상적인 발달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사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계속적으로 심화시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상담 사례를 다루는 전문성의 영역으로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개념화는 “내담자의 심리·대인관계·행동적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원인 및 유지·강화 요인들,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문제 해결의 방향과 더

나아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입 전략 및 기법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운주, 2001). 선행 연구는 높은 수준의 사례개념화는 낮은 수준의 사례개념화에 비해 내담자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저항과 전이와 같은 상담의 장애물이나 종결에 대한 이슈를 예상하도록 하며, 상담 목표를 명료화하고 개입하는데 효과적이라 설명하고 있다(Sperry & Sperry, 2012/2016). 또한, 상담자들은 사례개념화를 통해 상담 개입과 전략에 관한 보다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Hill, 2005),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상담을 통한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치료적 효과를 낳는다(서경희, 김지현 2008; Hill, 2005). 이를 미루어볼 때, 상담자가 상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운영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사례개념화 능력은 상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역전이 관리란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전이 즉,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모든 감정, 태도와 행동(Little, 1951; 최명식 2003에서 재인용)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상담 개입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상담자의 자기통찰, 불안 관리 등(Van Wagoner et al., 1991)과 같은 상담자의 능력을 의미한다(Gelso & Carter, 1994; Kernberg, 1965). 김지은(2005)은 부정적 역전이의 발생과정을 분석하면서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부정적 소망을 거쳐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역전이 관리 능력이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여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느낄 수 있는 혐오/분노, 난

감/무력, 두려움, 수치/죄책감 등의 역전이 감정을 조절하여, 내담자에 대해 무관심/배척, 의존, 통제/훈계, 문제 회피 등과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담자의 자기인식을 통한 역전이 해결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홍영식, 한재희, 2012)을 미루어 볼 때, 역전이 관리 능력은 상담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상담 성과에 기여하는 전문적 상담 능력이라 볼 수 있다(Hayes, Gelso, & Hummel, 2011; Peabody & Gelso, 1982).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에게도 사례개념화 능력이나 역전이 관리 능력과 같은 전문적 상담 능력을 갖추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상담 경력이 많은 상담자의 높은 사례개념화 수준과(이운주, 김계현, 2002; 여혜경, 2001;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높은 역전이 관리 능력을 보고하고 있고(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한은주, 최하나, 2013), 수퍼비전 경험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적 능력을 확장하고(이미정, 박승민, 2015; 홍영식, 한재희, 2012), 역전이를 다룰 수 있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하정, 2016). 이는 사례개념화 능력이나 역전이 관리 능력과 같은 상담 전문성이 상담자의 경력에 따른 사례 경험 수와 수퍼비전과 같은 수련경험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의 상담 경력은 상담자들이 수퍼비전을 경험한 경력과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개인별 다양한 직업 동기나 자격 요건 등의 특성으로 인해 상담 경력과 수퍼비전을 경험한 경력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김지연과 김동일(2015)은 교사라는 직업의 매력, 교직의 안정성 등을 주로 고려하여 교직에 진입한 교

직전문성 추구형의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며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분석, 수퍼비전 등을 통해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증진하는 등의 노력은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교직전문성 추구형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경력이 많더라도 수퍼비전 경험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문상담교사가 기관 내 1인 상담자로 근무하고 있어 선임 상담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수퍼비전을 받기 어렵다는 점(김지연, 김동일, 2015; 김혜숙, 이기학, 2012; 남순임, 2016)과 일반 상담자들이 상담자로서의 직업 활동을 위한 상담관련 학회 자격증 취득 과정에는 보통 10회 이상의 수퍼비전 경험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에 단, 2회 이상의 사례연구 및 발표 경험이 요구되거나,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의 경우 수퍼비전 경험을 자격 취득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는 계속교육과정으로서의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받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수퍼비전을 받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담자에게 수퍼비전은 자신이 수행하는 상담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조언을 얻을 기회이자, 자신이 적절한 상담기술과 능력을 사용하고 발달시켜 나가는지, 상담의 깊이를 심화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Landany & Bradly, 2010/2013, p.3.;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에서 전문상담교사들에게도 수행되어야 할 교육 형태라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는 수퍼비전과 같은 적절한 피드백 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이 내

담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자칫 내담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윤희, 박성현, 2014; Studer,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과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이 다를 것이라 예상하고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일반 상담 수퍼비전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 전문성 즉,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연수에서의 수퍼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퍼비전 연수의 제도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수퍼비전을 학교 상담에서 필수적인 계속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경력(4년 미만/4년 이상 8년 미만/8년 이상)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0회/1~10회/11회 이상)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재 전국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연수 및 전문상담교사 대상 연수 등에서의 지면 설문 또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은 연구 참가에 동의한 전문상담교사들에 한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지면 설문지는 200부가 배포되었고 온라인 설문지 43부를 포함하여 총 149부가 회수되었다. 수거된 설문지 중 무응답 혹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를 제외한 총 14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성별에 따라 남자 10명, 여자 131명으로 나타났다. 상담 경력에 따라서는 4년 미만 경력이 53명, 4년 이상 8년 미만 경력이 59명, 8년 이상 경력이 29명으로 나타났고,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서는 0회 경험이 45명, 1회 이상 10회 이하 경험이 78명, 11회 이상 경험이 18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학사가 63명, 석사과정 및 수료가 24명, 석사가 47명, 박사과정 및 수료가 6명, 박사가 1명으로 나타났고,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3명, 중학교 86명, 고등학교 28명, 위센터 24명으로 나타났다. 최상근(1993)은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직사회화 과정에 따라 교직경력을 생존단계(0~3년), 재평가 단계(4~6년), 평정단계(8~13년)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임용 전과 후 실제 상담에 종사한 경력을 합한 기간을 상담 경력으로 보고 4년 미만, 4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개인상담 수퍼비전 10회 이상 경험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을 0회, 1회에서 10회, 그리고 11회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도구

사례개념화 척도

전문상담교사의 사례개념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서경희, 김지현(2008)이 개발한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10문항),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3문항),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4문항), 상담목표 및 전략(4문항)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례개념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경희, 김지현(2008)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87,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73,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78, 상담목표 및 전략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79,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76, 내담자의 현재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77, 상담목표 및 전략 .81을 보였다.

역전이 관리 능력 척도

전문상담교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한 역전이 요인 검사(CFI;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를 국내 장세미(1999)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자기통찰(11문항), 공감 능력(11문항), 자기통합(11문항), 불안관리(8문항), 개념화기술(9문항)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 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세미(1999)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8,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통찰 .67, 공감능력 .84, 자기통합 .80, 불안관리 .76, 개념화기술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 .92,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통찰 .65, 공감능력 .76, 자기통합 .76, 불안관리 .81, 개념화기술 .72 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윈도우용 IBM SPSS 18.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상담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실시 후 각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실시 후 각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 분석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상담 경력 집단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한 결과, 상담 경력 8년 이상 집단이 상담 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집단에 비해 사례개념화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인의 하위 요인별 Scheffe 검증한 결과 사례개념화의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영역에서 상담 경력 8년 이상 집단이 상담 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개념화의 상담자의 인간관 및 태도 영역에서는 상담 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집단이 상담 경력 4년 미만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 경력이 많을수록 사례에 대한 이해와 개념화를 잘 할 수 있으며, 특히 내담자의 종합적인 이해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인간관 및 태도는 상담 경력이 가장 낮은 4년 미만의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분석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라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 분석

변인	상담경력 4년미만 ^a		상담경력 4년이상 8년미만 ^b		상담경력 8년이상 ^c		F	Scheffe	
	N	M (SD)	N	M (SD)	N	M (SD)			
전체	53	84.68 (9.16)	59	83.24 (7.82)	29	88.11 (7.26)	3.31*	b<c	
사례 개념화	1. 내담자문제이해	53	4.04 (.42)	59	4.01 (.36)	29	4.25 (.36)	4.18*	b<c
	2. 상담자인간관	53	4.44 (.54)	59	4.15 (.58)	29	4.33 (.54)	3.97*	b<a
	3. 내담자상황인식	53	4.13 (.62)	59	3.99 (.53)	29	4.18 (.55)	1.37	-
	4. 상담목표 및 전략	53	3.77 (.64)	59	3.81 (.67)	29	3.97 (.62)	.95	-

a=상담경력 4년미만, b=상담경력 4년이상 8년미만, c=상담경력 8년이상

* $p < .05$

표 2.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분석

변인	상담경력 4년미만 ^a		상담경력 4년이상 8년미만 ^b		상담경력 8년이상 ^c		F	Scheffe	
	N	M(SD)	N	M(SD)	N	M(SD)			
전체	53	186.09 (18.10)	59	181.12 (17.09)	29	188.66 (20.34)	1.98	-	
역전이 관리	1. 자기통찰	53	3.78 (.43)	59	3.69 (.35)	29	3.63 (.43)	1.40	-
	2. 공감능력	53	3.74 (.38)	59	3.66 (.38)	29	3.82 (.48)	1.61	-
	3. 자기통합	53	3.85 (.40)	59	3.69 (.41)	29	3.86 (.48)	2.54	-
	4. 불안관리	53	3.63 (.51)	59	3.46 (.61)	29	3.82 (.58)	4.23*	b<c
	5. 개념화기술	53	3.56 (.44)	59	3.56 (.43)	29	3.73 (.48)	1.74	-

a=상담경력 4년미만, b=상담경력 4년이상 8년미만, c=상담경력 8년이상

* $p < .05$

상담 경력 집단에 따른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상담 경력 집단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일하게 역전이 관리 능력의 불안관리 영역에서 상담 경력 8년 이상 집단이 상담 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경력이 많은 전문상담교사는 역전이 관리 능력 중 불안 관리 능력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수퍼비전 경험 집단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증한 결과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0회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사례개념화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인의 하위 요인별 차이를 *Scheffe* 검증한 결과 사례개념화 능력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영역에서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집단이 수퍼비전 0회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개념화의 내담자의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0회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표 3.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 분석

변인	수퍼비전 0회 ^a		수퍼비전 1~10회 ^b		수퍼비전 11회이상 ^c		F	Scheffe	
	N	M (SD)	N	M (SD)	N	M (SD)			
전체	45	83.89 (8.31)	78	83.95 (8.43)	18	90.39 (6.37)	4.92*	a, b<c	
사례개념화	1. 내담자문제이해	45	4.01 (.39)	78	4.04 (.39)	18	4.32 (.30)	4.65*	a, b<c
	2. 상담자인간관	45	4.22 (.59)	78	4.29 (.55)	18	4.50 (.57)	1.56	-
	3. 내담자상황인식	45	4.04 (.54)	78	4.03 (.57)	18	4.44 (.52)	4.29*	a, b<c
	4. 상담목표 및 전략	45	3.80 (.63)	78	3.78 (.67)	18	4.11 (.53)	1.99	-

a=수퍼비전 0회, b=수퍼비전 1~10회, c=수퍼비전 11회 이상

* $p < .05$

나타났다. 즉, 수퍼비전 경험이 높은 집단의 전문상담교사들이 내담자문제이해와 내담자의 상황인식력이 높음을 보여준다.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역전이 관리 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수퍼비전 경험 집단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차이를 *Scheffe* 검증한 결과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0회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역전이 관리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변인의 하위 요인별 *Scheffe* 검증한 결과 역전이 관리 능력 자기통찰 영역에서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0회 집단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전이 관리의 공감능력 영역에서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0회 경험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통합 영역에서는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개념화 기술에서 수퍼비전 11회 이상 경험 집단이 수퍼비전 0회 경험 집단과 수퍼비전 1~10회 경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퍼비전의 경험이 많은 집

표 4.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역전이 관리의 차이 분석

변인	수퍼비전 0회 ^a		수퍼비전 1~10회 ^b		수퍼비전 11회이상 ^c		<i>F</i>	<i>Scheffe</i>	
	<i>N</i>	<i>M(SD)</i>	<i>N</i>	<i>M(SD)</i>	<i>N</i>	<i>M(SD)</i>			
총점	45	181.98 (18.27)	78	183.32 (17.64)	18	196.22 (17.74)	4.99*	a, b<c	
역전이 관리	1. 자기통찰	45	3.63 (.36)	78	3.71 (.40)	18	3.92 (.43)	3.52*	a<c
	2. 공감능력	45	3.68 (.39)	78	3.68 (.39)	18	4.02 (.39)	5.89*	a, b<c
	3. 자기통합	45	3.77 (.43)	78	3.74 (.41)	18	4.02 (.46)	3.31*	b<c
	4. 불안관리	45	3.52 (.61)	78	3.61 (.57)	18	3.73 (.52)	.88	-
	5. 개념화기술	45	3.55 (.45)	78	3.56 (.45)	18	3.86 (.38)	3.89*	a, b<c

a=수퍼비전 0회, b=수퍼비전 1~10회, c=수퍼비전 11회 이상

* *p* < .05

단에 속한 전문상담교사들은 자기통찰, 공감 능력, 자기통합, 개념화 기술 등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이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역전이 관리 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례개념화 능력은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라 중간경력 집단에 비해 고경력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경력의 상담자는 낮은 경력의 상담자에 비해 보다 우수한 사례개념화를 한다는 연구들(손은정, 이혜성, 2002; 여혜경, 2001;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이윤주, 김계현,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경력에 따라 다양한 상담 사례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내담자 이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례개념화 능력이 함께 발달해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집단 간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역전이 관리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로서의 자각과 통찰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역전이 관리 능력은 단순히 상담 경력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아마도 역전이 관리 능력은 사례개념화 능력과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한발 물러나 알아차리는 상위인지 자각을 필요로 하는데(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상위 인지 자각이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의 학습만으로는 발달되기 쉽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전체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상담 경력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달리,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인 '불안관리' 영역에서는 고경력 집단이 중간경력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간경력 집단 전문상담교사들에 비해 고경력 집단의 전문상담교사들이 내담자들과 상담할 때, 보다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상담하고, 내담자의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내담자가 강한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쉽게 동요되지 않는 등, 불안을 보다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역전이 관리 능력의 불안관리에 아동상담자의 근무연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차지은, 2012)와 전문상담교사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여러 어려운 상담 경험을 통해 내적 자신감을 높여간다고 보고한 연구(이지원, 오인수, 2016)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많은 전문상담교사는 경력이 적은 교사에 비해 익숙한 상담 환경에서 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사례 경험과 함께 연륜에서 오는 편안함과 자신감 등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개념화 능력은 수퍼비전 고경력 집단이 무경력 및 저경력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수퍼비전

기간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호정, 2010),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개념화에 대해 배우며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결과(채순옥, 최혜란, 2015)와 일치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개념화의 하위 요인인 '내담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내담자의 내·외적 상황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슈퍼비전 고경험 집단이 슈퍼비전 무경험 및 저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상담교사는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상담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학습하게 되고, 내담자와 사례를 보다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역전이 관리 능력에서는 슈퍼비전 다경험 집단이 슈퍼비전 무경험 및 저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퍼비전 경험이 없거나 적은 집단보다 많은 집단이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고(이선옥, 2012),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의 자각이 자기를 통찰 및 통합하고 내담자를 공감하게 되는 등 역전이 관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홍영식, 한재희, 2012)를 뒷받침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들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슈퍼비전 경험 집단 간에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인 자기통합, 자기통찰, 공감 능력 및 개념화 기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자의 미해결 과제와 내담자의 문제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통합이 높아지고(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문제나 과거사건, 역전이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다는 연구(홍영식, 한재희, 2012)와 맥을 같이한다. 즉, 전문

상담교사는 슈퍼비전을 받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의 감독을 통해 자신의 감정문제에 대한 자각을 요구받고 새로운 통찰을 경험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통합, 자기통찰, 공감능력 등 역전이 관리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의미와 학교 상담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전문성(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의 발달은 상담 경력보다 슈퍼비전 경험에 의한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 두 요인인,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등에서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상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상담 경력이 적은 전문상담교사 보다 상담 경력이 많은 전문상담교사가 뚜렷하게 상담 전문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는 기존 실시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대상의 연수의 방향과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증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학교 상담의 보다 안정된 정착과 발전을 다지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에서의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슈퍼비전 연수나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슈퍼비전을 직무 연수로 개설하거나 전문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슈퍼비전이라 할지라도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직무 연수 시간으로 인정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전문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많

은 전문상담교사의 슈퍼비전 접근에 대한 벽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학교 상담의 질을 확연하게 높일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과 슈퍼비전 경험은 각각 역전이 관리 능력의 다른 하위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은 역전이 관리 능력의 하위 요인 중 ‘불안관리’에, 슈퍼비전 경험은 ‘자기통찰’, ‘공감능력’, ‘자기통합’, ‘개념화기술’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전문상담교사의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불안관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직업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가 가지는 다소 혼란스러운 정체성과 역할에 잘 적응해간다는 의미이자, 업무적으로는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사례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하며 학생들을 보다 안정감 있게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 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과 상담에 대한 자신감과 내적 안정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상담 경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가 없었던 점은 상담 경력만으로는 전문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상담 경력에 상응하는 슈퍼비전 등 수련 과정을 통해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 등의 상담 전문성을 함께 구축해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에 따른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자발적인 수련 과정은 전문상담교사가 만족도 높은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을 근무 연수로만 설정하여 근무 연수가 같을지라도 전문상담교사가 다룬 총 사례 수, 위기개입 사례 수 등이 다르므로 인해 상담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상담 경력 측정 시 상담 경력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슈퍼비전 경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사례개념화 능력, 역전이 관리 능력 내 하위 요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상담자들이 슈퍼비전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 영역을 가시화하고, 슈퍼바이저들이 상담자 슈퍼비전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담 슈퍼비전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전문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사례개념화 능력과 역전이 관리 능력 두 가지만을 설정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 슈퍼비전과 사례개념화, 역전이 관리 외에 인공통계학적 변인 등 상담 전문 영역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슈퍼비전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05-839.
-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 <http://kess.chedu.go.kr>

- re.kr.에서 2017.4.15.에 인출.
- 금명자 (2007).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예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43-861.
- 김순영, 배성만, 주은선 (2015).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른 상위인지 자각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2), 157-178.
- 김인규 (2009).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김인규, 조남정 (2010).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분석 연구. *한국교육연구*, 27(2), 97-115.
- 김지연, 김동일 (2015).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 유형 탐색. *상담학연구*, 16(4), 157-175.
- 김혜숙, 이기학 (2012). 전문상담교사 경력 단계별 연수 요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05-528.
- 남순임 (2016). 전문상담교사의 발달단계에 따른 슈퍼비전 모형 개발. *한국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경희, 김지현 (2008). 사례개념화 상담자 자가평가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57-673.
- 손은정, 이혜성 (2002).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29-843.
- 여혜경 (2001). 전문상담가와 초심상담가의 내담자에 대한 가설형성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상담자의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이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이미정, 박승민 (2015). 상담수련과정에서 상담자의 자기 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6(1), 1-29.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367.
- 이선옥 (2012).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포커싱적 태도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포커싱적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운주 (2001). 상담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운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지원, 오인수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발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7(4), 351-372.
- 이지희 (2010). 전문상담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희, 김희대, 이상민 (2012).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요구분석. *상담학연구*, 31(1), 193-214.
- 이호정 (2010). 사례개념화의 상담자 자가평가와 슈퍼바이저 평가와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지은 (2012). 이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 능력에 관한 연구: 경력·훈련 경험, 상담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성향을 중심으로. *한양*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순옥, 최혜란 (2015). B대학교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수련 경험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 교육연구*, 4(1), 73-89.
- 최명식 (2003). 역전이 개념의 변천, 분류 및 치료적 활용에 대한 이해. *인간이해*, 24, 1-22.
- 최상근 (1993). 한국 초·중등교사의 교직 사회화 과정 연구. *교육사회학 연구*, 3(1), 57-78.
- 통계청 (2016a).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에서 2016.11.7.에 인출.
- 통계청 (2016b).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 상현황. <http://kostat.go.kr>에서 2016.11.7.에 인출.
- 하 정 (2016). 상담전문가의 역전이 관리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311-337.
- 한은주, 최한나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족도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홍영식, 한재희 (2012). 상담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자각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387-1406.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296-306.
- Hayes, J. A., Gelso, C. J. & Hummel, A. M. (201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8(1), 88-97.
- Hill, C. E. (2005). Therapist techniques, client involvement, and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Inextricably intertwined in the therapy proces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4), 431-442.
- Kernberg, O. (1965). Notes on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is Association*, 13, 38-56.
- Landany, N., & Bradly, L. J. (2013). 상담 슈퍼비전. {Counselor Supervision 4th edition}. (유영권, 안유숙, 이정선, 은인애, 류경숙, 최주희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0년에 출판).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Sperry, L., & Sperry, J. (2016). 상담실무자를 위한 사례개념화: 이해와 실제.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Ease and Confidence}. (이명우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2년에 출판).
- Studer, J. R. (2006). *Supervising the school counseling trainee: Guidelines for practice*.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3), 411-421.
- 원 고 접 수 일 : 2017. 02. 15.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4. 06.
최종게재결정일 : 2017. 04. 06.

Differences in School Counselors' Case Conceptualiz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by Their Career Length and Supervision Experiences

Yoonwon Park

Hyojung Shin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differences in school counselors' case conceptualiz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by their career length and supervision experiences. A total of 141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areer, supervision experience,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we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and *Scheffe* follow-up verificat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areer group showed statistically higher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y than the middl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mong th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career groups. On the other hand, on 'anxiety management', a factor of overall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the high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areer group showed statistically higher than the middl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career group. Second, the more than the higher supervision experiences group is better case conceptualization abilit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than the lower supervision experiences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school counseling and school counselor's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supervision, case conceptualizati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